최저임금 전쟁 본격화… '스태그플레이션·일자리 감소' 우려

최초안 '1만 890원 vs 9160원'… 노사 입장 팽팽
경영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 호소
중기중앙회, "최근 5년 인상률 42%… 영세 업종 배려 필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가 2023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보고서 분석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만 8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14만 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만원으로 인상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층은 최대 4만 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 8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 없다고 대답한 곳은 47%, 고용 감축(9.8%)이나 신규채용을 축소(36.8%)하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9.5%는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보원 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사장들도 여력만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고 싶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진정되며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잠시였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는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로 인한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2% 가량"이라며 "지급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업종별 편차가 크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하고 어려운 업종은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주요 5개국(G5)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라며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해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 및 생산성 등에 연동되지 않은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정 기자 sjp@newdailybiz.co.kr

게임업계,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에 전전긍긍

월단위 관리 개편안 공개
노사 합의 권장 방안 검토
노조 없어… 실효성 낮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 검토에 게임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조가 부족한 게임업계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직된 주52시간제를 해결하기 위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도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2시간 이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연장근로를 한 달 단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특정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1개월로 제한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상품·신기술 연구분야만 3개월이지만 이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1개월을 기준으로 2주 동안 일을 많이 했을 경우 남은 2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맞췄다면, 변경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한 달 반을 길게, 한 달 반은 짧게 근로시간을 가져가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를 게임사에 적용할 경우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신작을 준비하는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출시 이후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과거 게임업계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했던 '크런치 모드'가 부활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측은 연속된 근로 사이에 휴게 시간을 강제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사 간 마찰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동준 기자

4단계 법인세 과표구간 완화 필요… 누진구조 기업성장 저해

조세硏,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OECD국가 대부분 단일세율… 최고세율 인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세율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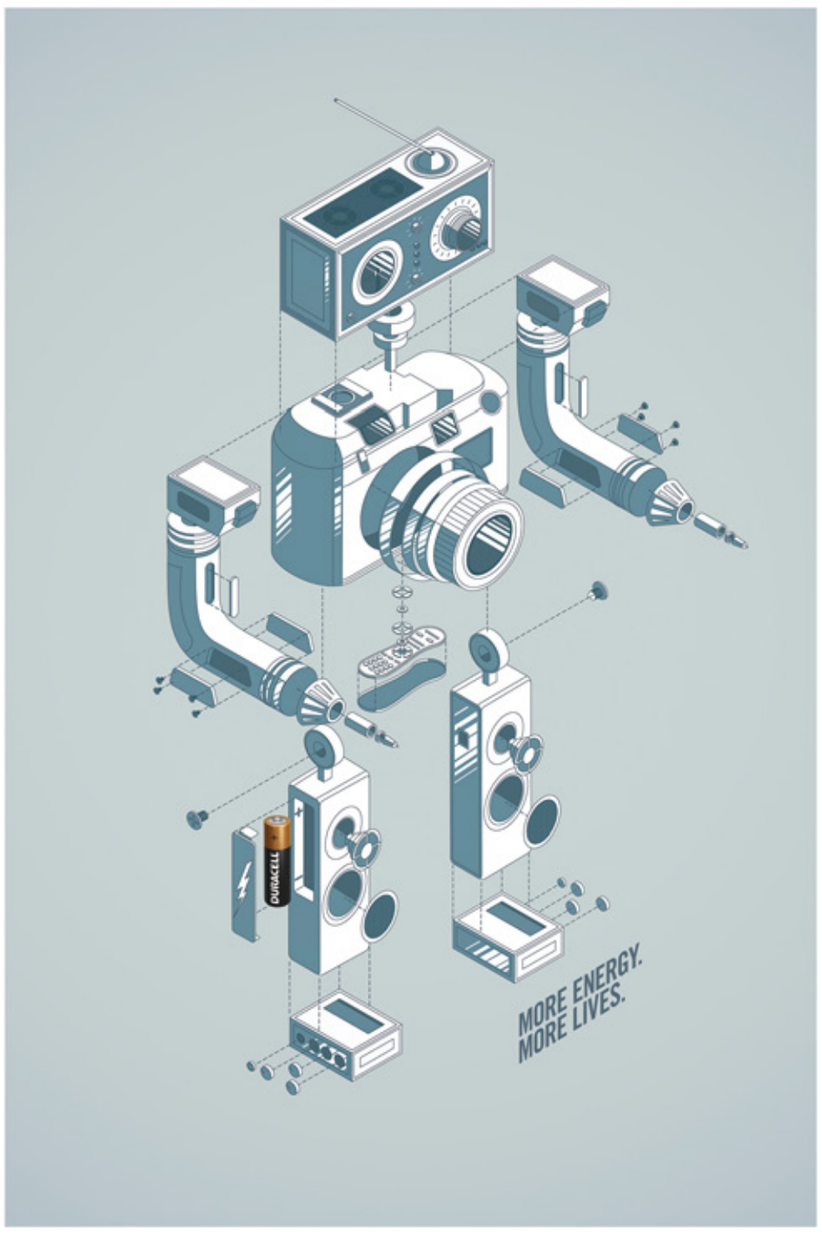
조세연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등 2개국 밖에 없다. 미국·영국·독일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일본·호주·프랑스 등 11개국은 과표구간이 2단계다.

미국은 2018년 누진세율을 단일세율(21%)로 개편했으며 같은해 영국은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해 세율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미, 일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정 기자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Robot 로봇
Client: Duracell 듀라셀
Agency: PUBLICIS LIMA 퍼블리시스 리마